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박차

'도란도란 서포터즈' 출범

청년·상인 등 3개 그룹 15명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기획·추진

순천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서포터즈를 출범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6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중앙동 일대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란도란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즈 출범은 지난해 10월 전남도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일환이며, 올해 3월 활성화 구역으로 중앙동 일대가 지정됨에 따라 실현됐다.

이로써 '도란도란 서포터즈'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상인들과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상인과 시민이 도란도란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란도란 서포터즈'는 원도심을 사랑하는 시민·청년·상인들을 대상으로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모집했으며, 20~60대까지 연령대별 3개



순천시는 지난 26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란도란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그룹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원도심 내 다양한 행사 홍보 및 활동 지원,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도심 상권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의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2026년까지 3년간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시비 25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전라남도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2

년 더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상권거점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서포터즈 출범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해남군민 먹거리 기본권 지킨다

해남군 3기 먹거리위원회 출범

33명 참여 민관협치 방식 해결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민관협치 방식으로 해결하는 민관커버넌스, 제3기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명협관 해남군수를 위원장으로 농산업 위원회, 건강먹거리 위원회, 공공먹거리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 6개 분과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는 3기 위원회에는 해남군의회와 농협군지부를 비롯해 농업인, 어업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 33명으로 구성됐다.

먹거리위원회에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가공 활성화, 먹거리를 통한 군민의 건강과 바른 식생활 교육,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도농 상생 교류를 통한 지역 먹거리의 대외 확산, 공공 급식 확대, 먹거리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남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

인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성공적으로 해남2030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민관협치 방식으로 해결하는 해남군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남군 먹거리 정책은 전남 유일 4년 연속 농식품부 우수 사업에 선정된 것은 물론 2022~2023년 지역먹거리지수 우수,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하면서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총 누적매출 14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먹거리 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다"며 "해남군 먹거리 정책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 군민과 함께 하는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 해남의 미래 세대에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농가 소득 보전에 앞장서겠다"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30호 100% 입주계약 완료

영암군은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공급과 주택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입주계약을 100%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받고 2년간 거주,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융양 휴먼시아 아파트 200호를 공급받아 전국 최초 공공기관 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우선 30호에 대해 입주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20일까지 입주계약을 완료했다. 곧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사회 초창기 겪고 있는 주택마련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섬진강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성료

하천 활동가 등 500여명 참석

곡성군이 지난 26일 섬진강에서는 최초로 강문화 축제인 '제23회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강의 날' 행사는 강과 하천을 잘 보존해 깨끗한 강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국의 대표적인 민간 학술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강살리기네트워킹과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과 곡성군이 후원했다.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하천 활동가와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 속에 진행됐다.

대회 첫날 5대강 합수식과 토종어류 방류로 '한국 강의 날'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개막식에서는 '햇살 밝은 곡성 꿈이 익는 섬진강 동요랑 요들 이랑 요멜클럽', '대황강 아집들 장구난타' 등 지역민의 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뤘다.

이틀째인 27일에는 '강 살리기 우수 사례 콘테스트' 예선전이 열리고, 섬진강기차마을과 침실습지·용산단-태안사 등 곡성 생태문화 투어와 버스킹 공연, 환경 활동가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강 살리기 분선 콘테스트'와 '장터 체험'으로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여수시가 지난 23일부터 5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내년부터 '여수만 르네상스' 본격 추진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핵심사업 76건 등 636건 논의

여수시가 내년 '여수만 르네상스' 본격 추진 등 '남해안 거점도시' 완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다짐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5일간 민선 8기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완성을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기명 시장과 13개 국·소·단장 및 58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핵심사업 76건과 신규사업 103건 등 총 636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더불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본격 추진에 더욱 집중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신규 사업은 ▲분청사 별관 증축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대응 발전 전략 수립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해양레저 레일바이크 설치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유치 ▲섬박람회장 내 도시숲 및 실외정원 조성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사업 타당성과 실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을 부서별로 차후 보완하여 예산 확보·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내년은 민선 8기의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해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결실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역대 가장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지만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은 반드시 완성해 시민 공감 시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부장 chkim@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